> 하버드대 폴장 교수
> 광주는 민주주의를 위해 어떠한 것도 희생하겠다는
> 시민들이 다진 굳은 의지의 최고점이었다

“5·18은 한국 시민영웅주의의 정수”

세계 석학들이 본 5·18

“자연인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 신세대와 새로운 방향 모색을” 광주학살 악의 규명 눈길도

5·18 40주년 국제 학술대회 오늘까지 유튜브로 생중계

26일 오후 전남대 이을호 기념강의실에서 5·18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광주를 너머, 세대를 너머’가 열렸다. 〈유튜브 생중계 캡쳐화면〉

“광주라는 지역은 민주주의를 위해 어떠한 것도 희생하겠다는 시민들이 다진 굳은 의지의 최고점이었다”, “5·18은 한국 영웅주의의 정수다”

세계적 석학들이 본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에 대한 평가다.

전남대 5·18 연구소가 마련한 5·18 40주년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세계적 석학들은 5·18을 한국민주주의를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으로, 민주화를 열망한 시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내려고 한 도시가 광주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또 학술대회를 통해 향후 5·18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분야와 연구 방향도 소개, 눈길을 끌었다.

전남대 5·18연구소는 26일 온라인상에서 ‘광주를 너머, 세대를 너머’를 주제로 하는 5·18 40주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27일까지 이어지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국내외 18명의 석학·연구자들이 참여해 주제·세션별로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발표자들은 ‘함께, 그리고 너머의 상상력’, ‘5·18과 시민교육’. ‘5·18의 정치사상적 해석’ 등을 소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5·18의 나아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하버드대 폴장 교수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1970년대 유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는 5·18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면서 “5·18은 한국의 비극과 한국의 영웅주의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오수웅 교수와 경기대 임경석 교수, 박경섭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원의 주제 발표도 관심을 끈다.

오 교수는 ‘루소 사상을 중심으로 5·18 광주항쟁 정신과 시민의 덕 교육’을 살펴봤고 임경석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의 계승과 시민교육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을 “표면적으로는 불법과 폭력으로 박정희의 군주정을 승계하려 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선 ‘자연인’의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였다”로 평가했다.

임 교수는 “5·18의 당사자와 후예들은 공포와 죽음 앞에서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절대공동체의 연대와 배려 및 나눔의 씨알이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잘 기억하고 신세대들과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시도를 경주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5·18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분야도 제시됐다.

노스웨스턴대 김하야나 교수는 ‘묘지에서 몸으로 만드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망월 묘역에서 시작된 풀뿌리 제사 액티비즘을 연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논하는 한국과 그 너머의 담론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추모 집회는 한국의 마지막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운 강력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5·18당시 한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자도 눈길을 끌었다.

일본 와세다대 사토 유키에 교수는 일본 외무성 기록을 중심으로 ‘5·18에 있어서 주한일본대사관의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은 한국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두환을 지지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신군부에게 일본은 그들의 정통성을 보강해주는 이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사토 교수는 주부산 후쿠다 총영사가 1981년 1월에 외무성 본성으로 보낸 보고서를 인용하며 당시 일본의 시각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5월 27일 계엄군의 효과적인 진압으로 질서와 평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전라도민의 불평, 불만이 해소된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힘으로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정치경제 상황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돼, 앞으로도 주의 깊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적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검찰 자택 압류 법정 공방 마무리

법원 판단 주목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둘러싼 전두환씨와 검찰 사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6일 전씨가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 기일을 열어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심문하기로 했다.

신청 사건의 특성상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씨 양측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징 대상 부동산이 (전씨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씨 장남 재국씨가 ‘일가 모두가 차명 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전씨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씨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씨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됐다.

전씨 측의 반발에도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지난 21일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남은 미납액은 991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원 미만 대에 들어섰다.

/연합뉴스

군공항 소음 피해 서구 주민 2만여명

추가 배상금 144억 받는다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를 겪고있는 서구 주민 2만명이 144억원의 추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018년 1차 소송 승소로 배상금을 받은 데 이어, 이후 2년간의 소음피해로 인한 추가 배상이다.

26일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민주평화당·라 선거구)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지난달 광주시민 2만여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144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고로 참여한 주민 가운데 1만 8600명은 지난 2018년 8월 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600억원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2년 동안 이어진 군 공항 피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받게 됐다.

나머지 주민 1400명은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로 이번 소송을 통해 5년 간의 소음피해 기간이 인정됐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도심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 농촌 80웨클를 초과하는 지역 주민들은 소송하지 않더라도 배상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배상금을 지급도록 하는 개정된 군 소음법이 시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들 수면제 먹이고 살해 ‘비정한 친모’ 자수

여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여수경찰은 26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친모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께 여수시 화장동 한 도로에서 중학생 아들 B(15)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원 수업이 끝난 B군을 차에 태운 뒤 고생했다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였고 B군이 잠에 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 처방받은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5시간 후인 26일 새벽 0시 4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B군을 홀로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사업지원비 반환 소송 준비 허술했나

광주디자인센터, 전 원장 회사 상대 손배소 패소

광주디자인센터가 전 원장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재)광주디자인센터가 “사업지원비를 반환하라”며 디자인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디자인센터는 지난 2015년 7월, 산업화 디자인 프로젝트 ‘지역 우수디자인상품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업으로 선정한 A사에 1억여원을 지원비로 지급했는데, 광주시가 종합감사를 통해 ‘기업당 최대 5600만원 이내 지원’이라는 공고를 어겼으니 회수하라고 지적하자 뒤늦게 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센터측은 ‘부부관계인 당시 센터 대표자와 A사 대표가 공모해 A사의 2개 품목에 대해 1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공고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디자인센터는 당시 공고 내용에 지원금액을 기업당 최대 5600만원 이내(자부담 포함)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사가 해당 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될 당시 및 선정 이후 센터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 센터 대표자가 A사 대표 남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도 없고 협약 체결 이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종합감사결과를 토대로 센터에 회수토록 요구했다 하더라도, A사에 대해 회수요구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센터측은 자신들이 소송을 제기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소송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소송을 허술하게 진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4414	1	남구 독립로80번길7, 103동 18층 1803호 [백운동,광주백운1휴먼시아] 84.61㎡[2020.4.현재관리비577,930원미납상태[현황조사보고서참조]]	아파트	282,000,000 282,000,000	2020타경4919[중복]
2020타경6489	1	북구 월동로88, 101동 9층 906호[각화동,글로벌APT]134.25㎡[2020.6.현재관리비약600,000원미납상태[현황조사보고서참조]]	아파트	276,000,000 276,000,000	
2020타경6830	1	북구 유림로175, 115동 13층 1302호 [동림동,삼익] 126.96㎡[2020.6.현재관리비약800,000원미납상태[현황조사보고서참조]]	아파트	227,000,000 227,000,000	
2020타경7109	1	북구 매곡로86번길2, 1동 16층 1601호 59.31㎡	아파트	98,000,000 98,000,000	
2020타경7260	1	북구 서강로155, 301동 1층 104호 163.6㎡	아파트	276,000,000 276,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타경2593	1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814-5 1510㎡ 제시외수목 단풍나무 등 183주	대	585,500,160 585,500,1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수목매각포함
		동소 814-6 141㎡	대		
		화순군 한천면 용암길 132-28 1층108.54㎡ 2층87㎡ 제시외 창고 등 60.47㎡	단독주택		
2020타경6588	1	남구 백운동 79-17 139㎡	대	132,681,960 132,681,9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매각.2020타경6380[중복]
		남구 진다리로13번동길 15 1층58.11㎡ 2층42.87㎡ 부속건물 광 3.96㎡ 1.32㎡ 제시외 2층 부속차양 등 33㎡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1514 2020타경5233 [중복]	2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571-4 180㎡[현황묵답,묵전]	답	106,684,000 106,684,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8현황대부분묵전,일부창고부속토지로이용중
		동소 707-2 1219㎡[현황묵전,일부는창고의 부속토지.제시외수목및계사로추정되는시설물각제외]	전		
	4	동소 573 2304㎡[현황전.이동가능한철제비닐하우스및식재된제시외수목각매각제외]	답	177,408,000 177,40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4896	1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517 238㎡[현황전,일부농로,일부법면.비닐하우스매각제외]	답	2,356,200 2,356,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5707	1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산161-7 13037㎡	임야	121,577,800 121,577,800	일괄매각.자연림상태.분묘소재여부알수없음[현황조사보고서참조]
		동소 산161-8 3500㎡	임야		
		동소 산161-11 76㎡	임야		
		동소 산179 1587㎡	임야		
2020타경67460	1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77-1 1289㎡[현황대부분묵전.향후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사실조회회신서참조]]	전	85,589,600 85,589,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측일부비석있는분묘2기소재
[자동차,중기]					
2020타경67538	1	사용본거지:익산시 무왕로22길 27, 2동 1403호[부송동,아름드리아파트] 등록번호:84우7911 차명:그랜드 스타렉스 연식:2017	자동차	17,500,000 17,500,000	보관장소:남구송암로124-3송원주차장
2020타경68418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삼정로 71 107동 807호 [두암동,부영맨션] 등록번호:84보8756 차명:포터Ⅱ [PORTERⅡ] 연식:2016	자동차	11,000,000 11,000,000	보관장소:광산구여대길224-1
[기타]					
2019타경68993	1	광산구 장록동750-17 4,405.38㎡ 부속건물 1,2층각260㎡사무실 펌프실및물탱크실40㎡	공장	3,644,664,520 3,644,664,520	건물만매각.일괄매각.기계기구중일련번호A-1사출설비라인과A-4사출설비라인은명판이서로엇갈리게부착되어있음[감정평가서참조]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221 [장록동,디동] 1,800㎡ 제시외 기계실 80㎡,기계기구목록참조[제시외건물포함][물건번호1: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포함[그중3점소재불명,감정평가서참조]]	공장		
2020타경1514 2020타경5233 [중복]	1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571-2 121㎡	도로	5,267,000 5,267,000	일괄매각
		동소 571-5 22㎡	도로		
		동소 571-6 76㎡	도로		
		동소 571-7 10㎡	도로		
	3	동소 707 200㎡	창고용지	97,472,400 97,472,4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매각포함
		담양군 봉산면 기곡상덕길 9-19 86㎡ 제시외 계단실 등 95.6㎡	창고시설		
	5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564-9 69㎡[공유자김명심지분1/2전부]	도로	793,500 793,5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20타경7444	1	북구 우산동 256-1 134㎡[공유자신상남지분190/3040전부]	도로	11,145,400 11,145,4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0. 9. 10.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0. 9. 17.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8. 2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신호